

 <b>인천광역시</b>		<b>보 도 자 료</b>		<b>경 추</b> <b>재외동포청 개청</b>	
		배포일자	2023년 6월 8일(목) 총 2매		
담당 부서	데이터산업과	담 당 자	• 데이터협력팀장 나홍선 ☎440-2361 • 담당자 조인철 ☎440-2363	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공공데이터 운영실태, 광역시도 중 인천시가 최우수

- 행안부, 2022년 운영실태 평가로 특별교부세 5천만원 교부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광역 시·도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,000만원을 교부받게 됐다고 밝혔다.

이번 평가는 전국 5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, 개방, 활용, 품질, 기타 등 5개 영역 16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인천시는 97.9점을 획득해 광역 단위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.

지난해 우수등급(96.34점)을 획득한 인천시는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시정 정책 결정의 기반자료로 활용해왔다.

특히, 인천데이터포털([www.incheon.go.kr/data/index](http://www.incheon.go.kr/data/index))을 개설해 시민들이 공공데이터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,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와 공모전을 개최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했다.

손혜영 시 데이터산업과장은 “우수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인천시의 공공데이터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”이라며 “앞으로도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인천시의 공공데이터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,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